

작품 내용

제 목	서명이 지워진 자리
내 용	환승 통로의 끝, 발소리가 잦아드는 자리에 작은 카페가 있었다.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무심코 벽으로 눈을 돌렸다가, 한 장의 그림 앞에서 걸음이 멈췄다. 해 질 무렵의 골목이었다. 담장을 타고 오른 능소화, 그 아래 몸을 둥글게 만 고양이 한 마리.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풍경이었다. 아니, 본 적 있는 그림이었다. 기억은 한 계절을 거슬러 올라갔다. 잠이 오지 않던 어느 겨울 새벽, 나는 우연히 누군가의 그림을 보았다. 팔로워가 이백 명 남짓이던 작은 계정이었다. 그는 매일 골목을 그렸다. 거창한 설명은 없었다. 다만 그림 아래마다 한두 줄, 그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능소화가 핀 골목, 퇴근길에 삼십 분을 서서 그렸다 고. 고양이가 자꾸 자세를 바꾸는 바람에 다리만 네 번을 고쳤다고. 나는 그 무심한 성실함이 좋았다. 누가 보아 주기를 바라지 않는 듯한, 그래서 도리어 자꾸 돌아가 보게 되는 그림들이었다. 그 그림이 지금 눈앞에 인쇄되어 걸려 있었다. 다른 점은 하나였다. 원래 그림의 오른쪽 아래에는 작은 서명이 있었다. 흘려 쓴 글씨,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기도 차 어려운 몇 개의 획. 그러나 벽에 걸린 그림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었다. 깨끗하게,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그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무언가 있던 자리를 지우면 거기 무엇이 남는가. 아무 것도 남지 않는다. 부수면 잔해라도 남지만, 지우면 본래 있었다는 사실마저 사라진다. 그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영영 알지 못할 것이다. 이 골목이 누구의 새벽에서 태어났는지, 누가 고양이의 다리를 네 번이나 고쳤는지. 휴대폰을 꺼내 그 계정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 게시물은 두 달 전이었다. 그림은 없고 한 줄의 문장만 있었다. 제 그림이 어딘가에서 제 이름 없이 팔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군가는 그 그림으로 가게의 벽을 채우고 값을 매겼는데, 정작 그것을 그린 이는 자기 그림을 되찾을 방법조차 알지 못했다. 그 아래 댓글은 셋. 위로의 말들은 짧았고, 무력했다.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 빈자리가 자꾸 내 일처럼 시렸다. 카페의 벽과 손안의 화면을 번갈아 보았다. 같은 능소화, 같은 고양이, 같은 골목. 한쪽에는 그린 이의 이름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이름이 도려내진 자리가 있었다. 같은 그림인데, 하나는 누군가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게 빼앗긴 것이었다. 사람은 본래 무언가를 남기려는 존재다. 동굴 벽에 손바닥을 찍어 누르던 시절부터, 우리는 내가 여기 있었음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어 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짓고 이야기를 쓰는 일도 멀리 보면 그 손바닥과 다르지 않다. 나 여기 있었다고. 이 골목을 보았고, 이 빛을 사랑

했고, 그것을 이렇게 옮겨 두었노라고. 서명은 그 외침의 가장 작은 형태다. 내가 이것을 만들 었다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한마디.

이름을 지운다는 것은 그러므로 글자 몇 자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있었다 는 증거를 거두어 가는 일이다. 그가 어둠을 건너 달은 새벽을, 그가 눈을 뜨고 사랑한 빛을, 무엇보다 그가 거기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 부르며 법전 안쪽에 밀어 두는 그 메마른 단어 안에 는, 실은 이런 것 들이 들어 있다. 누군가의 새벽이, 누군가의 노동이,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증언이. 저작권이 란 결국 그 증언을 함께 지켜 주자는 약속이다. 약속이 무너질 때 사라지는 것은 그림 한 장 이 아니다. 다음 그림 을 그릴 사람의 마음이다.

그제야 부끄러움이 차올랐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나는 몇몇한 사람이 아니었다. 발표 자료의 허전한 여백을 채우려 출처도 묻지 않고 끌어다 붙인 사진들. 다들 이렇지 않느냐고 스스로 변명하며 내려받은 노래들. 나는 그것들을 한 번 도 누군가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화면 너머에는 얼굴이 없었고, 이름은 이미 지워져 있었 으니까. 손가락 하나로 죄책감 없이 가질 수 있는 것 안에, 누군가의 새벽 과 누군가의 밤이 깃들여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 했으니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이름을 외면했을까. 얼마나 많은 서명을, 그 작은 증거 들을, 들여다보지도 않은 채 지워 왔을까. 카페 벽의 그 빈자리는, 내가 무심코 만들어 온 수 많은 빈자리의 자화상이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흔적을 어딘가에 남기려 애쓰며 산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의 흔적을 소리 없이, 끝없이 지우며 산다. 복제가 너무 쉬워졌고 옮기는 일이 너 무 가벼워진 탓에 우리는 자꾸 잊는다. 손끝의 그 가벼운 동작 아래, 누군가가 오랜 시간 다 져 올린 무거운 삶 이 통째로 매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내 치르지 않은 값을, 우리가 외면한 목소리를.

그날 나는 그 사람의 계정에 짧은 글을 남겼다. 당신의 능소화가 어느 카페 벽에 걸려 있더라 고. 그리고, 나는 당신의 새벽을 기억한다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어쩌면 그는 더 이상 그곳을 열어 보지 않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미 붓을 내려놓았는 지도.

다만 나는 가끔 그 계정을 연다. 비어 있는 화면을 본다. 그리고 생각한다. 언젠가 그가 다시 골목을 그린다면, 그때는 그 서명을 가장 먼저 보아 주리라고. 도려내진 자리가 아니라, 거기 분명히 있는 이름을.

본다는 것은 어쩌면 지키는 일의 처음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일, 빈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기억하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그 작은 응시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매일 무심히 누리는 노래와 그림과 이야기 아래에는, 지워져서는 안 될 새벽들이 잠들어 있다.

그 새벽들을 기억하는 한, 세상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것이 남아 있다.